

4) 농업생산과 경영실태

(1) 전남과 순천의 작물생산실태

일제시대에 논벼는 전국적으로 재배되었고, 쌀보리·소맥 등은 남부지역에서 그리고 조·옥수수·담배 등은 서쪽지방에서 크게 증식되었으며, 고구마·육지면(陸地綿)·섬유작물과 대부분의 특용작물 등은 남부지역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시대 작물별 작부면적 구성의 변천결과를 보면 전남의 경우 1910년 당시에는 논벼를 위시한 18종의 작물이 주로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1920년에는 육지면과 조의 경작비중이 커지고 작목수가 28종으로 늘어났다. 1936년에는 쌀보리·조·고구마를 포함하여 특용작물·채소·과수 등의 경작비중이 증대되었고, 작물종류가 다양해졌다. 이는 경지면적의 증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작부체계의 발달, 이모작의 증가에 따른 경지이용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¹⁾

전남의 주요 작물분포

(1937. 현재)

작물분포의 범위	작물명
전국적인 분포 ① 가장 균등한 분포 ② 비교적 균등한 분포 ③ 일부지방에서는 적은 분포	대두, ^{***} 대마, 임, 호마 기장, 소두, ^{**} 녹두, 메밀* 수도, ^{***} 대맥, ^{***} 소맥 ^{**}
비교적 국지적 분포 ① 북부·북중부에 분포 ② 남부·남중부에 분포	속, ^{***} 축서, 마령서 나맥, ^{**} 감자, 원초
국지적 분포 ① 북부·북중부에 분포 ② 남부·남중부에 분포	패,* 옥축서,* 연맥, 재래면 육지면,* 저마, 저

비고 : 작부면적이 특대(特大)는 ***, 대(大)는 **, 비교적 대(大)는 *.

출전 : 전라남도농촌진흥원, 『전남농촌진흥사』, 1994, 114쪽.

1933년까지 도농사시험장은 산미증식계획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 논벼 중심의 연구실적을 보면 주로 논벼의 이앙기와 품종의 선택, 건답(乾沓)재배방법, 만식(晩植)의 문제, 자급비료의 효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방지를 위한 연구들을 수행했다.

일제시대의 농업은 일차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찾고, 일본 본토의 기술을 쉽게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콩·들깨·참깨·기장·팥·녹두·호밀은 조선인의 부족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균등하게 생산토록 유도한 반면,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쌀과 보리는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또한 남부에는 쌀·보리·고구마·왕골·육지면·모시·박 등을, 그리고 북부에는 조·수수·감자·옥수수·귀리·재래면 등을 집중 장려하였다.

1) 순천문화원, 『순천승주향토지』, 1975, 139쪽.

전남의 작물생산고 전국대비 점유율

(단위 : %)

구분	쌀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채소	과수	면화	녹비	기타
1910	15.3	14.1	7.0	2.2	3.7	8.0	3.6	39.0	50.4	7.9
1920	13.3	12.4	3.8	3.8	8.1	7.3	5.0	35.5	30.2	9.0
1930	12.6	13.2	3.7	3.9	7.5	6.8	4.3	24.5	39.0	8.7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21·1931.

일제시대 전라남도의 미곡생산고 점유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화는 1910년도에 39.0%에 이르고 녹비(綠肥)는 50.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남에서는 쌀·잡곡·서류의 생산액이 증가했는데도 일본으로 반출이 늘어나 쌀소비는 감소했고, 중국과 만주 등에서 잡곡을 수입하여 소비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 수출은 미곡·면화 이외에도 콩·팥·밀·밀가루·채두·담배 등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남지방은 최대의 미곡 생산지역이지만 해방 전, 도민의 곡류 소비구조양식을 보면 보리·잡곡·쌀 순으로 쌀을 적게 소비하고 있었다. 1910~1936년 사이에 전라남도 권업모범장과 도종묘장을 중심으로 농업증산을 위하여 착수한 최초의 기술개발사업은 품종개량사업이었다. 이들 권업모범장과 도종묘장에서 보급한 품종의 숫자만을 살펴보면, 1910년 18개 품목, 1920년 28개 품목, 1936년에 무려 46개 품목이 생산되었다.

전남의 쌀 우량품종 보급률은 웅정(雄町 : 30%), 중숙신력(中熟神力 : 20%), 다마금(多摩錦 : 17%), 곡량도(穀良都 : 15%), 변경(辨慶 : 14%), 조신력(早神力 : 4%) 순으로 이루어지고 우량품종이 보급되어 있었다. 전남에서 생산된 미곡은 품질이 탁월하여 일본에서 수입상담이 쇠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순천의 우량미종(優良米種) 작부면적·수확고

(1928. 현재, 단위 : 반·석)

구분	조신력	다마금	웅정	곡량도	중숙신력	변경	계
작부면적	8,671	30,428	14,479	36,918	18,123	21,955	130,574
수확고	11,008	37,338	19,299	45,783	24,568	29,648	167,644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60쪽.

순천에서는 주로 6개의 우량미종이 보급되어 총 13만 574반이 경작되었고, 16만 7,644석이 생산되었다. 이들 우량품종 가운데 곡량도는 3만 6,918반에 4만 5,783석이 생산되었다.

맥종은 도육묘장에서 육성·보급하였는데, 보리는 주로 대용식량을 위한 이모작으로 권장되었다. 두숙류는 혼종이 많고 개량 여지가 많았으나, 전남은 면작과의 경합 때문에 주로 제주도 같은 휴한지를 선정하여 재배토록 장려하였다. 특히 완두는 6,589석을 낼 정도로 급속히 보급되었다. 대두·조·고구마·감자는 조수입 증대, 한해 등에 영향을 받아 주식용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